



기아차, 송호성 사장 사내이사 선임 기아차는 10일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송호성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사내이사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기아차 송호성 사장, 최준영 부사장과 주우정 전무 등으로 꾸러지게 됐다. 기아차 송호성 사장(왼쪽)이 주주들에 인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감원과 감독·검사 역량강화 업무협약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용감독원은 10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애경산업, 코로나 현장 간호사에 구강용품 기부 애경산업의 토탈 오랄케어 브랜드 '2080'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구강용품 2080박스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광월회 제1부회장(오른쪽), 애경산업 김남수 상무(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연순 사무총장(왼쪽)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동아제약, 문화예술봉사단 메리 후원 협약 동아제약은 지난 9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봉사단메리'와 후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왼쪽), 박주영 문화예술봉사단 메리 이사장(가운데),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제약



에스오일, 순직해경 유자녀 학자금·공상자 치료비 전달 에스오일은 1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순직 해경 유자녀 학자금 및 공상 해경 치료비 전달식'을 열고, 유자녀 21명과 공상 해경 25명에게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오일은 유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에스오일

트라우마



진성오 소장의
심리학카페

트라우마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입은 심리적 상처를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자연 재해(지진, 해일, 산사태, 화산폭발), 기술적 재해(댐이나 건물붕괴, 비행기 추락, 화학물질 유출, 원자로 파괴), 폭력적 범죄(살인, 폭행, 성폭행, 강도, 유괴, 납치), 관계상실(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폭력을 당해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목격)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반응을 야기하게 된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난 후에 다양한 심리적 부작용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하며 여러 가지 유형의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 보통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자꾸 의식에 침투하여 재경험되는 침투사고, 외상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것, 외상 사건의 재경험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억·생각·감정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자극이나 단서를 회피하려고도 한다.

또,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

에 있어 부정적 변화를 야기하며 외상 사건의 중요한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왜곡하여 받아들여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생리적으로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를 보여 과민하고 주의집중을 잘하지 못하기도 한다. 더불어 사소한 자극에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수면의 곤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인간의 영혼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트라우마가 인간의 영혼을 쪼먹는 이유 중 하나는 트라우마 사건의 시간은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다. 특히 시간축을 두고 과거의 사건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게 한다. 그러나 그때 경험한 정서적 경험은 우리의 정서적 기억에 남아서 그 흔적인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이다. 기억은 과거 속에 속하고 혹은 과거를 흘러간 시간 속에서 있어 버린 혹은 지나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논리적인 사고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때 상처받은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몸은 기억한다'라고 베셀 반데어 폴크는 말한다. 몸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몸의 긴장과 고통의 경험이 지금 이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몸의 기억을 다루지 않는 한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을 다루지 않는 한 우리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트라우마의 또 다른 잔인한 측면은 우리가 직접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을 보거나 알게 되어도 우리도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큰 트라우마 사건은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도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 부처님이 말한 '인생은 고탈의 바다'라는 표현은 '인생은 트라우마의 바다'로 바뀌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이후 삶의 가치를 깨닫고 또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이전에 이루지 못한 성숙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외상후 성장이라고 표현한다.

가장 좋은 것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어난 고통이지만 이후 이를 어떻게 보고 대처하는가에 의해 그것이 성장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의마음연구소장

KT&G, 러시아·터키에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총 1억 상당 7600개 진단키트 전달

KT&G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에 총 1억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지원했다.

지난 5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에 진단키트 6300개를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조치다.

코로나19 현황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일 기준 47만6000여 명으로 세계 3위 규모다. 최근 하루에만 8000여 명의 확진자가 속출해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

17만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터키 역시 지난 3일 기준 일 3만건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시행됐으며, 전체 확진자는 210만 건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터키 모두 감염병 확산 저지를



KT&G가 러시아 깔루가주(州)정부와 터키 보건부에 총 1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했다. (왼쪽부터)김영훈 KT&G 러시아 법인장, 포텐킨 러시아 깔루가주(州) 수석 부지사.

위한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 의료 물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KT&G는 러시아와 터키에서 해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진단키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총 7600개의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러시아 깔루가주(州)정부와 터키 보건부에 전달됐다. 지원 물품은 감염질환 전문병원 등 의료현장에 공급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인사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승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부회장 이용용 △아주경제 편집국장(상무) 임재천 △데일리리빙방 편집국장 김병수
- ◆업다운뉴스 △대표이사 김한석
-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장 산업IT부부장 대우 한지운

부음

- ▲최치상(전 대전 서구의회의 의장)씨 별세 = 9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 대전을 지대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북 진안군 선영, ☎ 042-611-3980
- ▲최홍국씨 별세, 최재호(유진기업 관리부 문 전무), 철호(GM 대우), 은영(삼성생명)

- 씨 부친상 = 10일, 전북 군산시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2일 8시, 장지 군산 승화원 (063) 441-4444
- ▲한기호씨 별세, 한진철(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옴은 대표변호사)씨 부친상, 고은애(법률사무소 해누리 대표변호사) 시부상=9일,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부산 영락공원, (051)711-4400